“ 영혼 사랑 ” (5대 강령 시리즈 5)

(고린도전서 9:16-19)

오늘은 마지막 제5대 강령인 영혼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래전 스코트랜드에서 목회하는 무명의 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름 대로 최선을 다하며 목회를 했지만 특별한 열매는 없어 보였습니다. 서로 친분이 있어 어느 날 두 분이 만나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목사님이 먼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아직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커다란 기대를 걸고 열심히 집회를 인도했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은 일어나라고 했더니,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목사님은 서로 목회 생활의 쓰라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 놀라운 열매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3년 만에 딱 한명을얻었다고 한 그사람이 바로 **로버트 마펫(Robert Moffat)**인데, 그는 당시 아프리카 선교의 중요한 기초 틀을 마련한 **SAM(South African Missions)의 창시자요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이 부흥회를 통해 마지막 날에 영접한그 한 사람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웠고 큰 영향력을 끼쳤던, **데이 비드 리빙스톤(David Livingstone)**이였던 것입니다.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로버트 마펫 선교사님이 바로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장인어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셔서 비록 무자하고 무식한 갈 릴리 어부들 중심으로 바로 12명의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16절)이라는 이 말씀은 부담스럽거나 부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반대로 읽으면 '내가 만일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로다!'로 읽어야 합니다. 바로 그 한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라고 분명히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존재이고 또한 당신을 통해 복음을 알고 구원받을 그 영혼도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과 기쁨과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나누도록 해야 하는 이 일을 '부득불 할 일'로 그리고 이 일을 '섬기는 사명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가장이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일터로 나가듯이, 그리고 부지런히 일을 하듯이 '억지로라도' 그러나 '사명'으로 여기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자녀의 미래와 축복을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젠가 자녀들이 부모의 이런 수고로 인해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섰을 때 부모님의 공로도 같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여 해산의 고통이라도 인내하며 애쓰는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복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도록 그 은혜와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영혼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모든 일들을 어려움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듯 영혼 사랑의 일도 오직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위해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으며 복음의 채널이 되시는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표어

“사랑으로 함께 일어서는 능력의 공동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한복음 15:12)

사랑의 5대 강령: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다음세대 사랑, 서로 사랑, 영혼 사랑

일반집회		교회학교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시	오전 예배부	주일 오전 10시
드림 워십	주일 오전 8시	영아부	주일 오후 12시
글로리 워십	주일 오전 10시	유아부	주일 오후 12시
블레싱 워십	주일 오후 12시	유치부	주일 오후 12시
청년예배	주일 오후 12시	초등부	주일 오후 12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시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러브미션부	주일 오후 12시
수요중보기도회	수요일 저녁 8시	새나라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유 아 부	최수진 사모 (917)526-1344	1, 2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유 치 부		청2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초 등 부	최주안 전도사 (646)662-0691	3 선 교 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 고 등 부	손주영 전도사 (917)797-4237	4 선 교 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러 브 미 션	박명애 전도사 (718)737-1643	5,6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청 년 부	김성준 목사 (617)949-1118	히 스 패 닉	이효성 목사 (646)549-6043
영 어 회 중	폴 김 목사 (201)679-2924	네 팔	다니엘 바스넷 목사 (201)927-0220
행 정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몽 골	티모시 투글들 목사 (646)467-2675
양 육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다민족사역	양영란 전도사 (917)533-9511
새 가 족 부	최순성 목사(정) 박수진 전도사(부)	시니어사역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심 방 부	박수진 전도사 (646)642-9331		

단비 기독교TV (타임워너 케이블 채널1487)/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본방송)
토요일 오전 11시(재방송)

2025년 2월 16일

1부 예배 8:00am | **2부 예배** 10:00am

드림 워십 인도: 최순성 목사 | 글로리 워십 인도: 최순성 목사

*경배와 찬양 Worship Song	두나미스 찬양팀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제 7번 "시편(Psalms) 13편"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Creed'
찬송 Hymn	새19장(통44) "찬송하는 소리 있어" 'Hark, ten Thousand Harps and Voices'
기도 Prayer	홍성로 장로 (Elder Sung Ro Hong)
성경봉독 Scripture	전도서(Ecclesiastes) 9:1-6
*봉헌 Offering	새213장(통348)"나의생명드리니"(1,4절) 'Take My Life, and Let It Be'
찬양 Anthem	글로리아 찬양대 "나의눈 열어 주소서"
설교 Preaching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 보인다"** Life is Seen Through Death's Perspective (전도서인생론 시리즈 14) 김학진 목사
*찬송 Hymn	새483장(통532) "구름 같은 이 세상" 'Lord, I Care not for Riches'
*축도 Benediction	김학진 목사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s	

3부 예배 12:00pm

블레싱 워십 인도: 최순성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경배와 찬양	블레싱 찬양팀
기도	나창현 집사
공동체 소식	영상
성경봉독	갈 5:22-23, 고전 9:25
*봉헌	"나 무엇과도 주님을"
설교	**"성령의 열매: 절제"** 최순성 목사
찬양	"오늘 이곳에계신 성령님"
축도	최순성 목사

(* 표는 가능하면 일어나심 / Stand if able)